

원자력 NEWS

오명 부총리 제49차 IAEA 총회 기조 연설 각국 대표와 원자력 외교 펼쳐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9월 26일~30일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개최된 제49차 IAEA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IAEA 총회에는 오명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관계자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등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 제고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오명 부총리는 138개국에서 장관급 등 원자력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IAEA 정기총회 기조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와 핵투명성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한국의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하여 독립 기관으로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를 설립한 것과 개정중인 원자력법 현황을 소개하고, ISSAS 등 한국의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IAEA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오 부총리는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천명한대로 현재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IAEA 회원국과 NPT 조약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 현황, 원전 건설 계획 소개와 함께 한국의 원전 운영·건설 기술에 대해 회원국과의 공유를 제안하고, IAEA가 추진중인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ANSN)에 대해 원자력 선도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오 부총리는 2002년 한국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정상 운영중인 RCA 지역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사무국의 활성화에 IAEA와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IAEA 이사회의 대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국의 수를 현재 35개에서 43개로 늘이는 것을 규정한 IAEA 헌장 6조의 발효를 촉구하였다.

오 부총리는 기조 연설 후 IAEA 사무총장, 미국, 중국, 인도, 알제리 등과 수석 대표 회담을 갖고 양자간 원자력 협력 강화,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IAEA 이사국에 재선 제49차 IAEA 정기총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으로 재선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밖에 노르웨이, 이집트, 쿠바 등 11개국을 2년 임기의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해온 데 이어 앞으로 2년 더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신월성 1,2호기 건설 개시 안전 기원제 시작으로 부지 정지 착수

국내 23, 24번째 원전인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이 본격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9월 2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취득한 신월성 1,2호기의 부지 정지 공사를 10월 1일부터 개시했다.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는 부지 정지 공사 착수 하루 전인 9월 30일 이종재 한수원(주) 사장을 비롯, 대우건설 송재오 본부장, 삼성물산 김정차 본부장, GS건설 박진규 부사장 등 신월성 건설 시공 3사 관계자 및 인근 지역의 주요 내빈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월성 1호기 건설 부지 일원에서 '신월성 1,2호기 건설 공사 안전 기원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안전 기원제는 공사 착수 전에 협력 업체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로 사실상 공사 착공을 의미한다.

신월성 1,2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69만평의 부지에 100만kW급(2기) 개선형 한국표준형 가압경수로(KSNP+)로 건설된다. 2011년에 1호기가, 2012년에 2호기가 준공될 예정으로 약 4조717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건설 기간 동안 연인원 8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들어간 신월성 1,2호기 건설 공사는 한수원 주도 아래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하게 되며, 종합 설계 영역은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한다. 주설비 시공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이 참여하며, 특히 원전의 안전의 운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약 25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보조 기기 납품 및 시공에 참여하게 되는 등 관련 업계의 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 원자로 냉각재 배관의 자동 용접으로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 1차 계통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일체형 원자로 상부 구조물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등 최첨단 시공법을 도입해 최고 품질의 발전소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주민 투표 11월 2일 실시 경주·군산·포항·영덕 등 4개 지역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방폐장)의 용지 선정에 위한 주민 투표를 11월 2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9월 15일 "4개 시·군에 대해 용지의 안전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평가 한 결과 모두 방폐장 후보용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4개 지역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이 중 과반수 찬성 및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 용지로 선정된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4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주민 투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후보 용지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4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9월 15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후 "중저준위 방폐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어서 유치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6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중국 신규 원전 건설 협력 등 논의

제6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가 10월 12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6차 공동(위)에는 한국의 최석식 과학기술

부 차관, 중국측에서는 손근(孫勤) 중국국가원자능 기구(CAEA) 주임을 수석대표로 양국 원자력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국 원자력 정책 및 국제 동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기술 협력 의제로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연구 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술 등 5개 분야별 협의가 진행되면서, 중국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자재 제작 협력,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 협력, 양국 원자력 인력 교류,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기술 개발 협력 등 39개 의제를 협의하였다.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양국 원자력협력협정(1994.10)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약정(1999.10)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국 정부간 협의 기구이다.

“SBS의 울진 5·6호기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한수원(주), 6개항 해명

한수원(주)는 지난 10월 5일 SBS가 보도한 울진 원전 응축기 부식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다.

1. “울진 5,6호기 원전 응축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이 출구 부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능 물질이 유출돼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에 대하여

□원전의 응축 장치(복수기)에 누설이 발생하여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방사능 물질은 절대 유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수기 내에 있는 물은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의 응축수(순수)로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원자로 냉각재와 완전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기에서는 튜브 내부의 바닷물과 튜브 외부의 증기 간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방사성 물질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여 복수기 튜브에서 바닷물

이 누설되어 복수기 내부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복수기 내 응축수의 수질을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설비가 작동하여 경보를 발생시키고, 절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돼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는 보도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2. “울진 5,6호기 복수기 부식이 슈퍼스테인리스 스틸을 30% 섞어 쓴 것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울진 5호기 복수기 지지판의 녹 발생은 슈퍼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튜브와 지지판 재질(티타늄)이 상이하여 용접이 불가하므로 튜브를 확관하였는데 그 틈새로 해수가 침투하여 지지판에 부식이 발생한 것이며 슈퍼스테인리스 스틸이 부식된 것은 아니다.

3. “복수기 튜브 재료를 티타늄으로 바꿔야 하는데”에 대하여

□국내에서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복수기 튜브 손상은 이물질 낙하, 고압 증기로 인한 마모 등 기계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수소취성, 진동 등에 의해 주로 복수기 상부에 위치한 튜브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울진 5,6호기 복수기는 상부 튜브 재질을 강도와 경도가 높고 증기 마모 등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우수한 슈퍼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한 것이다.

해외 발전소의 경우에도 70년대 이후 미국의 Calbert Cliffs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유럽 등 70여기에서 슈퍼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4. “복수기 녹제거 작업을 위해 울진 5호기 준공 직전 두 달 동안 원전 시험 가동까지 몰래 중단했던 사실도 확인됐다는데”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설비는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계획 예방 정비를 하며 울진 5호기의 경우 2004년 7월 상업 운전 이후 1년차 연료 교체 를 위하여 2005년 6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49일간 계획 예방 정비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중

발전소 전반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복수기 부식 발생을 확인하고 보수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시험 가동까지 몰래 중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5. “한수원이 부식 사고가 난 울진 5,6호기 기술 담당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고 신고리 1,2호기 튜브 사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기술 담당자들은 즉각 교체하는 조치를 내렸다는데”에 대하여

□ 울진 5,6호기 복수기 튜브 재질로 내식성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슈퍼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하여 설계 개선을 한 것이므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고리 1,2호기에 반대 의견을 낸 기술 담당자를 즉각 교체한 사실도 전혀 없다.

6. “두산중공업이 신고리 1,2호기 원전에 슈퍼스테인리스 튜브 대신 티타늄을 써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한수원이 원안대로 하라며 일축했다는데”에 대하여

□ 울진 5호기 복수기 지지판 녹 발생은 튜브 재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기 제작사의 튜브 확관부 제작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작 방법의 변경을 통해 부식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기 보호를 위해 내식성, 취성 및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슈퍼스테인리스 스틸을 신고리 1,2호기에 사용토록 하였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정 감사 답변에서 SBS 보도 이후 정부 내에 진상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고 밝히고, 울진 5, 6호기는 물론 신고리 1, 2호기의 응축기 재질 변경 과정도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원전 지원금 대폭 확대될 듯 시행령 개정안, kWh당 0.4원씩 지원

내년부터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식이 기존의 합산 지원금 방식에서 발전량에 따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원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기존의 기본 지원금(22억5천만원)에다 가동중인 발전기 한 기당 1억5천만원 등의 추가 지원금을 합산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전년도 발전량(kWh당)에 0.4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자원부는 울진을 비롯한 전국 5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안)이 적용되면 울진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원금이 현행보다 3~5배로 대폭 늘어나게 되며 수혜 지역도 기존 원전 소재지 5km 이내 읍·면·동 지역에서 기초지자체 행정 구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또 지원금 운영과 관련 특별 지원 사업의 결산 등에 대한 심의 주체도 중앙심의회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던 것을 일반 예산처럼 지방의회로 일원화되며, 지원 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구성원도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지역 인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관리, 평가, 기타 부대 경비 등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울진 원전 '유리화 시설' 설치 추진 400억원 투자, 2007년 완공 예정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압축해 유리 속에 넣어 고체화시켜 저장하는 '유리화 설비 가동 처리 사업'이 국내 최초로 올 연말 울진 원전 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9월 27일 원자력환경기술원 따르면, 유리화 소각로 설비는 올 연말 약 400억원의 사업비로 울진 원전 3발전소 방폐물 처리 건물내에 착공, 오는 2007년 7월 준공할 예정할 예정이다.

유리화 소각로 설비는 건평 40여평에 폭12m, 길

이 11m 규모로 시간당 20kg 처리가 가능하며 올진 원전 1~6호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중저준위 폐기물'의 약 3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유리화 과정은 가연성 폐기물을 1천100℃ 가량의 저온 용융로에 투입해 유리화 혼융되면 보관용 드럼 용기로 배출시켜 고형화시키는 것으로 이 가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황산화물 등의 유해 성분은 고온 필터에서 1차로 걸러지고 고효율 HEPA 미세 분진용 필터 등 6단계를 거쳐 최종 탈질 장치를 통해 방출된다.

SMART 플랜트 건설 연구 협약 체결

KAERI · 칠레 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칠레원자력위원회(CCHEN)와 칠레의 해수 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SMART) 플랜트의 건설 타당성 국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는 IAEA 지원으로 내달부터 2년간 양국에서 수행될 예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최근 개발, 국가 실용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체형 원자로 해수 담수 플랜트를 칠레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칠레에서 해수 담수 플랜트의 경제성과 기술성이 다시 한번 입증될 경우 물이 부족한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등에 일체형원자로 해수 담수 플랜트를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화학 관리 기술 워크숍 개최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9월 29일~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원전 화학관리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형 원전이면서 첫 주기 때 무고장 안전 운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제3발전소

에서 주최했으며, 국내 원전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 기관 등에서 80여명의 화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학 관리 기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표회를 가졌다.

김현수 영광 제3발전소장은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원전 설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학 기술을 이용한 수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전문가들의 경험과 기술 교환을 통해 원전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월성 원전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 실시

원전 종사자 등 130여명 참여, 주민 보호 검증·보완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9월 28일 월성 3호기에서 원전 종사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실시한 훈련으로,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유관 기관을 본부내에 가상 기구로 발족시켜, 사고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종사자와 인근 주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선 비상 사고를 가정하고 확산 지역을 예측, 환경 방사능을 측정하고 평가, 비교해서 이미 수립된 주민 보호 계획을 검증하였다.

수출 선도형 핵연료 개발 착수

한전원자력연료(주), 2010년까지 210억원 투입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산업자원부와 '수출 선도형 고성능 고유 핵연료 개발' 과제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10월 4일 밝혔다.

'수출 선도형 고성능 고유 핵연료'는 정부 지원금 147억4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2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오는 2010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가 전략 과제로 선정되기도 한 이번 핵연료 개발은 지금까지 국내 보급에 치중돼 오던 것과 달리 수출 주도형으로 개발돼 핵연료의 수출 산업화 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핵연료의 성능 향상으로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전원자력연료(주) 관계자는 “수출 선도형 고성능 고유 핵연료가 개발되면 국내 경수로 원전 20기에 핵연료 주기비 약 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열적 성능 향상을 원전의 출력 증가에 활용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의 이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STAR 개발에 미·일 등 본격 참여 다자간 국제 협력 조정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형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를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가 본격 구축된다.

과학기술부는 10월 5일부터 사흘간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센터에서 한·미·일 공동으로 「KSTAR 다자간 국제협력 기술조정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핵융합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PPPL)·GA사 등과 핵융합 진단 및 운전 제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일본원자력연구소·핵융합과학연구소 등과 핵융합 진단 및 가열 장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특히 미국과는 컬럼비아대학·GA 등과 영상 회의를 개최, 한·미 간 KSTAR 공동 운용을 위한 원격 제어 실험 기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KSTAR 부대 장치 공동 개발에 각각 2600만달러와 2000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오는 2006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착수를 앞두고 러시아 등 참여국들은 KSTAR 공동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

내왔다.

기초과학지원원 부설 '핵융합연구센터' 출범 국가 핵융합 에너지 개발 주력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핵융합연구센터'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번에 설립된 핵융합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명실공히 세계 핵융합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 기관(International Fusion Collaboratory)'으로의 운영을 목표로, KSTAR 장치의 성공적인 완공·운영, ITER 사업 참여에 따른 국내 전담기구(ITER Domestic Agency)로서의 역할 수행, 핵융합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 관련 첨단·원천 기술의 국내 이전 및 산업화 등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 센터에 'KSTAR 사업단', 'ITER 사업단' 등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센터(N FRC : National Fusion Research Center) 초대 소장에 신재인 박사가 선임되어 10월 5일 취임식을 가졌다. 신 선임 소장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원자력학회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한국핵융합협회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 전문 인터넷 신문 창간 <데일리엔파워(www.dailylnpower.com)>

국내 최초의 원자력 전문 신문이 탄생되었다. 한국 원자력신문사(대표 박재구)는 최근 원자력산업의 건강

한 발전과 대안 모색을 표방하고 인터넷 신문 <데일리엔파워(www. dailynpower.com)>를 창간했다. 박재구 대표는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원자력 전문 신문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웠다.”면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비롯하여 원자력의학, 방

사성 동위원소를 위한 생활 속의 원자력산업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원자력의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창간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엔파워>는 원자력 종합 뉴스, 발전, 의학, RI, R&D, 전력 에너지, 기획 특집, 인물, 문화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IAEA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선정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노력한 공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62) IAEA 사무총장이 공동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월 7일 “원자력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평화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로 IAEA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1975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가 출범한 후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감시 기구로 활동해 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집트 출신의 외교관으로 1993년 IAEA 대외 관계 담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후 1997, 2001년에 이어 지난 9월 세 번 연속 IAEA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그는 “우리 업무에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쟁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소식

「2005 Nuclear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및 배포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과 회원사들의 주요 활동 사항 및 사업 내용을 외국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자 최근 영문판 홍보 간행물 「2005 Nuclear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하여 국내외 주요 기관에 300여부를 배포하였다.

본 간행물의 외국 기관에 대한 배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관련 기관 : 정부 및 산업계 74개 기관
- (2) 주한 대사관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46개 기관
- (3) 원자력학회 : 미국(ANS), 프랑스(SFEN), 일본(AESJ) 등 46개 기관
- (4) 원자력산업회의 및 협회 : 미국(NEI), 프랑스(FAF), 일본(JAIF) 등 27개 기관
- (5) 국제 기관 및 기구 : IAEA, OECD / NEA, WNA, WANO 등 14개 기관
- (6) 주요 기관 및 회사 : 미국(US NRC, ASME 외) 프랑스(CEA 외), 일본(전력회사, 원자력연구소 외) 등 43개 기관 및 회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본 홍보 책자를 개정 발간하여 외국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